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선정식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 북구 임동에 위치한 서림지역아동센터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은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00호점 선정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사진)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은 2015년을 시작으로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광주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역 내 아동센터 및 취약계층 가정의 학습공간 개보수를 지원한다.

이번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00호점으로 선정된 서림지역 아동센터는 지역 아동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돕는 시설로, 노후화된 창문으로 단열이 되지 않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아동들의 학습과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광주은행은 서림지역아동센터의 외부 창문을 모두 교체 해줬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위한 새로운 책걸상을 선물하는 등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최권범 기자



서구,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 우수기관

광주 서구가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

보건복지부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운영 성과, 우수사례 등 세부 평가 기준을 심사해 서구를 포함한 상위 12개 보건소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미래 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과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에게는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보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충식품 패키지(6종)를 공급하고 최대 1년 동안 영양교육과 가정방문 상담, 정기적인 영양 평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구는 관내 가족센터 및 드림스타트, 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사회와 연계해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영양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정상이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전남책임의료기관 워크숍

전남권역책임의료기관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나주 일원에서 '2024년 전남도 책임의료기관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5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광주·전남책임의료기관 전담 인력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남지역책임의료기관인 전라남도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과 함께한 워크숍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전담 인력 역량 강화와 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지역사회 돌봄 확대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향후 과제 역량 강화 △사업 수행의 기본이 되는 기초조사 △공공보건의료의 현안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특강과 분야별 사례 발표·토론 등으로 실시됐다. 노병하 기자



서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우수사례 공유

광주 서구가 지난 4일 18개동 복지업무 공무원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에서는 복지현장의 최일선인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서 지난 1년 동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각 사례를 공유하면서 성과와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위기에 처한 정신질환 및 지적장애인 지원 사례, 고립 장애인 세대, 가정폭력 피해 세대와 민·관협력력을 통한 특화사업 등 다양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소망을 잃어 가는 이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비교적 젊은 직원들이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참석해 팀장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사회복지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 업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 등을 공유했다. 정상이 기자



광주인재평생교육원, 달빛 네트워크 성료

광주시와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광주-대구 평생교육 달빛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추진한 1박 2일 행사를 성료했다. (사진)

지난 4일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구에서 개최된 '대구-광주 평생교육 달빛포럼'에 이어, 10월31일과 11월1일 이틀간 광주에서 교류행사를 마련, 대구시 평생교육 관계자 30여명이 광주를 찾았다. 10월31일 개최된 '광주-대구 평생교육 달빛포럼'에서는 '초고령화 시대, 평생교육에서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다음날인 1일에는 북구 평생학습관 축제인 '북평데이'와 연계한 벤치마킹 탐방 연수와 광주 비엔날레 단체관람이 진행됐다. 대구 참가자들을 위해 마련한 미니토크콘서트에서는 마을활동가 7인이 광주 북구 평생학습관의 통합 브랜드인 '북평' 과 무류학교, 도시재생사 등 우수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상호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노병하 기자



금호타이어, 8년째 '희망의 공부방' 지원

금호타이어가 8년째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을 지원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사진)

지난 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최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희망의 공부방 34호점을 완공했다.

이번 34호점 완공식에서는 금호타이어 강진구 경영지원팀장 및 김선희 나눔사업2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부방 현판 전달 등이 진행됐다.

34번째를 맞은 '함께 GREEN 희망의 공부방' 지원 활동은 금호타이어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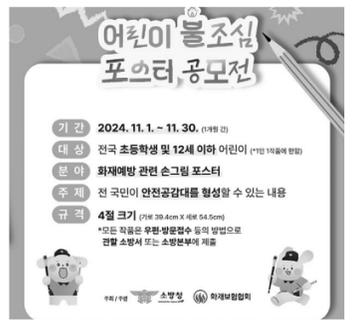
이 활동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수도권 내 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학습 교구와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광주 광산소방,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광주 광산소방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화재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포스터)

이번 공모전은 오는 30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광산구 관내 초등학교와 12세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화재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1인 1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작품은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광산소방과 광주소방안전본부에서는 접수된 작품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쳐 우수작 10점을 선정해 소방청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에 광주소방



대표작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성철 기자

'최민환에 양육권 소송' 율희, 변호사 만나 자문 구한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사진)가 심경 변화를 보이며 변호사를 만난다.

5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TV조선 예능물 '이제 혼자다'에서는 율희가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전 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사생활을 폭로한 후 제작진을 만난 율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율희는 "늦었지만 바로잡아야겠다"라고 심경 변화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밝힐 예정이다.

변호사를 만나 과거 협의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심경을 털어놓은 율희는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며 달라진 의지와 결심을 내비친다.

율희가 변호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했다. 슬하에 1남2녀를 뒀다. 하지만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기



로 했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민환에 대한 폭로 영상을 올렸다.

녹취록엔 성매매 정황으로 의심되는 대화를 다른 남성과 주고 받는 최민환 추정 음성이 담겼다.

최민환은 사생활 논란에 모든 미디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5일 "부부 문제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에 대해 당사가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최민환은 많은 대중과 시청자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하고자 한다"라며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율희는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뉴시스



에스파, 美 '빌보드 200' 6연속 톱50... 4세대 걸그룹 최초

초신성 걸그룹 '에스파(aespa·사진)'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K팝 4세대 걸그룹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4일(현지시간) 빌보드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에스파(aespa)'의 미니 5집 '위플래시(Whiplash)'는 9일 자 '빌보드 200'에 50위로 데뷔했다.

이에 따라 에스파는 4세대 걸그룹 중 처음으로 '빌보드 200' 톱50에 여섯장의 앨범을 연속해서 올린 팀이 됐다.

앞서 미니 2집 '걸스(Girls)'가 3위, 미니 3집 '마이 월드(my world)'가 9위, 미니 1집 '세비지(savage)'가 20위, 정규 1집 '아 마 겟 돈

(Armageddon)'이 25위, 미니 4집 '드라마(Drama)'가 33위를 찍었다.

3.5세대 K팝 간판 걸그룹 '있지(TZY)'의 미니 9집 '골드(Gold)'는 이번 주 '빌보드 200'에 60위로 진입했다.

정규 1집 '크레이지 인 러브' 11위, 미니 5집 '체커메이트' 8위, 미니 6집 '체서' 25위, 미니 7집 '킬 마이 다웃(KILL MY DOUBT)' 23위, 미니 8집 '본 투 비(BORN TO BE)' 62위에 이어 여섯 개 작품 연속 해당 차트 톱 70에 들었다. 미니 4집 '게스 후' 148위까지 총 일곱 개의 앨범을 '빌보드 200'에 올렸다. 뉴시스